

##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

임재욱\*

<차 례>

1. 서론
2.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 유형
  - 1) 지시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 2) 비유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 3) 복합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3. 애정시조의 화자와 ‘술’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애정시조에서 ‘술’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 그것은 ‘풍류와 흥취의 수단’, ‘사랑의 슬픔을 위로하는 수단’을 뜻하는 지시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고, ‘남녀 사이의 만남’이나 ‘남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감정’을 비유하는 중의적·복합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는 작중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성 화자 애정 시조 작품에서는 ‘술’이 주로 ‘풍류와 흥취의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성 화자 애정 시조 작품에서는 그것이 비유적·상징적 기능으로 활용되면서 애정과 관련된 보다 다채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술’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그것이 비교적 단순한 의미로 활용되는 보통의 시조 작품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술’이 지니는 의미망이 애정시조에서 보다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한국고전시가, 애정시조, 술, 풍류, 비유, 상징, 화자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의교수

## 1. 서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飲酒歌舞를 즐겨 왔다.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기던 우리 민족에게 ‘술’은 문학 작품 창작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고 작품의 중요한 소재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써 우리의 옛 노래 가운데에도 ‘술’을 소재로 활용하거나 ‘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 매우 많다.

우리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술’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정리할 수 있다.<sup>1)</sup> ‘술’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고전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가 그것이다. 고전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정병욱,<sup>2)</sup> 장덕순,<sup>3)</sup> 정병현<sup>4)</sup>

- 
- 1) 문학 이외의 영역, 이를 테면 예술·문화·민속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술’에 관한 연구와 저서는 문학 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므로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 그 가운데에서도 고전시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정병욱은 우리 고전 문학 작품 가운데 술이 중요한 소재로 활용된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국선생전>, <공무도하가>, <한림별곡>, 정철의 시조 <재 너머 성궐롱 집의>, <성산별곡>, <장진주사> 그 밖에 <춘향전>, <청산별곡> 등의 작품을 인용하여 ‘술’의 기능과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동명왕편>과 같은 신화 속에서는 ‘술’이 상대를 혼수상태로 몰아넣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공무도하가>에서는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한림별곡>과 <성산별곡>에서의 ‘술’이 醉興과 忘我的 경지를 보여준다면, <청산별곡>에서는 삶의 고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장진주사>에서는 인생을 달관한 철인의 사색과 감각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동양인에게 ‘술’은 기본적으로 취흥과 풍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국선생전>이나 윤선도의 <술도 머그려니와>와 같은 시조 작품에서는 節酒의 교훈이 표현되기도 했다고 했다.(정병욱, 『술과 한국인』, 『한국고전시가론』 증보판, 신구문화사, 1994, 379~392면)
  - 3) 장덕순은 우리의 시조와 한시 문학에는 ‘술’과 연관된 작품이 많은데, 특히 송순, 정철, 임제, 이규보의 작품에서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정철의 <장진주사>에서 ‘술’은 생과 사를 연결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송순의 <면앙정가>에서는 모든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녹여 버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장덕순,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최남선,<sup>5)</sup> 진동혁,<sup>6)</sup> 서창교<sup>7)</sup>, 유예근,<sup>8)</sup> 허남춘,<sup>9)</sup> 이상열,<sup>10)</sup> 전재강,<sup>11)</sup> 김주

『술과 문학』,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4, No. 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9, 277~278면)

- 4) 정병현은 우리 고전문학에서 ‘술’이 몽환적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키거나 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고전문학에 나오는 ‘술’의 기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정철의 <장진주사>에서는 ‘술’이 향락 또는 悅樂의 상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홍길동전>에서는 ‘술’이 집단의식을 고취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허생전>에서는 ‘세상살이 그 자체’로서 기능한다고 했다. 윤선도의 <파연곡>에는 ‘술’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고, <누항사>에서는 그것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우부가>에서는 한 인간의 파멸을 조래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또 <춘향가>에서는 ‘술’이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의 자리를 이상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도 하고,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했다. 또 애정시조 <이 몸 쉬어져서>에서는 ‘술’이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정병현, 『한국 고전문학과 술 문화』, 『한국어와 문화』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 17~26면)
- 5) 최남선은 고시조 작품 가운데 132개 작품을 醉樂類로 분류했다.(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13권, 현암사, 1974, 74~81면)
- 6) 진동혁은 취락류 작품에 대해 “선인들이 취락시조를 즐겨 읊은 것은 어지러웠던 현실적인 개념을 일시적이나마 망각하고 ‘술’로써 도취하여 무아의 경지에 빠지려는 의미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진동혁, 『고시조문학론』, 형설출판사, 1982, 30면)
- 7) 서창교는 시조에 나오는 ‘술’의 문학적 의미를 1) 興趣, 2) 恨의 승화, 3) 은유적 metaphor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2)에서 인용한 작품에 나오는 ‘술’은 슬픔이나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망각하는 수단이라고 했고, 3)에서는 애정 시조 <무서리 술이 되여>를 인용하여, 해당 작품에서의 ‘술’이 임이 늙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다.(서창교, 『고시조에 나타난 풍류 연구: 술이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66~77면)
- 8) 유예근은 송강의 단가와 가사 및 한시 가운데 ‘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면서, 송강에게 ‘술’은 豪氣를 발산하거나 空虛함을 메우는 수단이자 “煩累한 世俗의 榮枯盛衰의 시름과 한을 잊게 하는 消憂劑”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했다.(유예근, 『송강의 주송문학』, 『논문집』 제10권 제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55~57면)
- 9) 허남춘은 송강에게 ‘술’이 풍류의 수단이자, 삶의 시름·비에·허무·처절함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했다.(허남춘, 『송강 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81~85면)

순<sup>12)</sup>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시조 작가 가운데에서는 특히 ‘술’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긴 송강 정철의 ‘술’ 풍류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음주를 주제로 한 중국 한시와의 비교문학적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가 문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술’에 관한 연구는 그것이 풍류·홍취의 수단이 되었다거나 근심과 고민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식의 논의가 대부분이다. 물론 ‘술’을 주제나 소재로 하고 있는 시조의 대부분이 풍류, 홍취, 근심 해소 등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술’을 노래한 모든 시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몇몇 애정시조<sup>13)</sup> 작품에 소재로 활용되어 있는 ‘술’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 
- 10) 우상열은 정철의 시가 작품과 이백의 시를 비교하면서 ‘술’에 관한 논의도 함께 전개했다. 두 사람은 文豪이기에 앞서 酒豪라고 하고, 그들은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달래기 위해, 현실에서의 고민을 털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했다.(우상열, 『이백과 정철 비교 산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4, 224~226면)
- 11) 전재강은 송강의 시조에 나타나는 풍류를 자연 풍류와 음주 풍류로 나누어 살폈다. 송강에게 음주는 유희, 홍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뇌와 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송강이 ‘술’을 마시는 이유로 不平, 遇興, 待客, 人勸의 네 가지가 있다고 한 『戒酒文』을 소개했다.(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221~230면)
- 12) 김주순은 시조와 가사에 수용된 도연명의 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술’과 관련된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 飲酒醉樂, 2) 人生無常, 3) 懷抱述義, 4) 謝恩頌祝, 5) 尋訪招待의 다섯 가지 유형의 주제를 제시하고, 5개의 작품을 인용했는데, 인용된 작품에 나타나는 ‘술’의 의미와 기능은 모두 ‘風流’ 또는 ‘醉興’과 관련된 것이다.(김주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 『한중인문과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220~224면)
- 13) 본고에서 ‘애정시조’는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뿐만 아니라 ‘애정’과 관련된 표현이나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병현과 서창교의 논의에서 ‘술’을 소재로 활용한 애정시조 작품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두 논문에 인용된 애정 시조 작품은 각각 한 편밖에 되지 않고 논의도 단편적이고 인상적인 언급에 지나지 않아서, 애정시조에 나오는 ‘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역대시조전서』<sup>14)</sup>에 등재되어 있는 애정시조 가운데 ‘술’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을 모아, 각각의 작품에서 ‘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 2.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 유형

『역대시조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조 중에서 ‘술’ 및 애정과 관련된 시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작품을 찾아보면 24편이 발견된다. 이 작품들에 활용된 술의 의미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술’이 ‘술’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술’이 ‘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까지 지니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술’의 의미를 지시적 의미, 비유적 의미, 복합적 의미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관련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지시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 (1) 풍류와 흥취

많은 시조 작품에서 ‘술’은 풍류나 흥취와 관련된 의미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의미는 애정시조에서도 나타난다.

14)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387

金樽에 술을 부어 玉手로 相勸하니  
술 맛도 조커니와 勸하는 任이 더욱 좃타  
아마도 美酒 美行은 너뿐인가

388

金樽에 酒滴聲과 玉女의 解裙聲이  
兩聲之中에 어니 소리 더 豆흐니  
아마도 月沈 三更에 解裙聲이 더 豆왜라

1581

선우음<sup>15)</sup> 춤노라 하니 𨮒치음의 𨮒히 시에  
半嬌態<sup>16)</sup> ㅎ다가 𨮒 사랑<sup>17)</sup> 일홀세라  
든 술이 못내 𨮒 전의란 𨮒디 𨮒음 마자(鄭澈)  
(번호는 『역대시조전서』의 작품 번호, 행 구분과 밑줄 및 주석은 필자, 아래도 모두 같음.)

387은 ‘술’ 및 애정과 관련된 표현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풍류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작중 화자는 남성으로 이해된다. 이 작품에서 ‘술’은 女色과 함께 남성의 풍류와 흥취를 돋우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곧 이런 류의 작품에서 화자는 ‘술’과 여색을 모두 풍류의 방편으로 인식하고 두 가지를 함께 즐길 때 더욱 고조된 흥취를 느끼게 된다. 이들 작품에 나오는 ‘술’은 애정과 결합되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술’ 시조에 나타나는 ‘술’과 의미상의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다.<sup>18)</sup>

15) 선우음 :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

16) 半嬌態 : 덜된 아양.

17) 𨮒 사랑 : 가득한 사랑.

388의 화자는 ‘술’보다는 色을 더 선호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술’이 여색과 함께 풍류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위의 작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자는 ‘술’과 色 중에 굳이 한 가지를 택하라면 색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술’과 색을 모두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풍류와 흥취의 수단으로서의 ‘술’과 색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있다. ‘술’은 색과 어우러져야 맛을 더하고 색은 ‘술’과 함께 할 때 더욱 즐거운 것이 된다.

1581도 ‘술’ 및 애정과 관련된 표현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중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주제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음주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술’ 노래에 애정과 관련된 표현이 결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곧 음주에 관한 화자의 생각을 애정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술’은 풍류나 흥취를 돋우는 수단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sup>19)</sup>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술’과 애정이 비유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화자는 “선웃음을 참다가 재채기에 코가 싸하게 되고, ‘半嬌態’ 부리다가 ‘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이런 것을 교훈 삼아 단 술이 단지에 가득하게 피기 전까지는 다른 마음을 먹지 말자”고 노래한다. ‘다른 마음’은 ‘술이 채 익기 전에 조금하게 그 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18) 387 외에 452, 865, 3191, 3268에서도 ‘술’은 女色과 함께 풍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 대개의 시조 작품이 중장에서 핵심적인 시상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중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중장을 축으로 해석할 때 이 작품은 ‘술’을 통해 애정에 관한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금한 마음에 덜 익은 ‘술’에 입을 대면 완전히 익은 ‘술’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덜된 아양을 부리다가는 가득한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술’이 비유상관물이 되고, 그것이 비유하는 대상은 사랑이 된다.

해된다. 여기서 ‘半嬌態’는 ‘술이 덜 권’ 상태를, ‘촌 스랑’은 ‘술이 권’ 상태를 비유한다. 애정 관련 표현인 ‘교태’나 ‘스랑’이 모두 ‘술’의 비유상관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 (2) 위로의 수단

많은 시조 작품에서 ‘술’은 인생의 슬픔이나 외로움 또는 허무함 따위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술’의 이러한 기능은 애정시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작품에 나오는 ‘술’은 모두 사랑의 슬픔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749

님 離別 ㅎ엿다 ㅎ고 웃지 마라 海棠花야  
東君<sup>21)</sup>이 미양 잇서 百年이나 괴일너야  
우리는 酒國에 有長春 ㅎ니 버시 될가 ㅎ노라(扈錫均)

3107

폭苦草 저리김치 文魚 全鰓 껏드리고 黃燒酒 술을 타  
香丹이 들너 압 세우고 淳昌 潭陽 세대삿갓 눈섭 놀너 숙여 쓰고 五里亭  
나갈 적에  
玉佩은 錚錚 雲鞋는 자각자각  
五里亭 當道 ㅎ야 溪邊岩上에 酒案 노코 憂然歎息 우름 울 제  
머리도 아드득 쓰더 싹싹 뵈벼 너던지고  
잔담이도 부드덕 싹 더뵈여 너던지고

20) 하나의 작품 안에서 ‘술’과 애정이 비유적 관계를 맺는 것은 화자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에서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21) 東君 : 봄의 신 또는 태양의 신.

머들도 조로록 홀터 淸溪水에 디트리리고  
 無情世月若流波를 날노 두고 혼 말인가  
 二八青春 이 니 몸이 오늘날 離別호고 獨宿空房 웃지 살가

749의 초장에서 화자는 입을 이별한 처지인데, 해당화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웃지 말라고 경계한다. 이어 중장에서는 해당화도 자신의 입인 ‘東君’으로부터 영원히 사랑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종장에서 화자는 이별을 당한 자신과 해당화를 같은 처지에 놓인 것으로 간주하여 둘이서 함께 ‘술’에 취해 영원히 봄을 즐길 것을 제안한다. 이 작품에서의 ‘술’도 665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3107은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하는 대목을 활용한 작품으로 화자는 춘향이다.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할 때 오리정으로 나가면서 ‘뽕뽕草 저리김치 文魚 全鱈’과 같은 풍성한 안주를 곁들여 준비한 ‘꿀탄 黃燒酒’는 곧 이별주이다. 이별주는 이별할 때 아쉬움이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서로 나누어 마시는 ‘술’이다. 이 작품에서 ‘술’도 남녀의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 (3) 감정의 표현

다음의 작품에서 술은 사랑과 정성, 원망과 같은 남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1352

비노질 혼는 님 밋고 石上에 梧桐 심거

넙넙히 써여 니여 月下酒 비져두고  
님 나코 날 나흔 父母의 恩惠酒을 알외리라

538

남이라 님을 아니 두라 豪蕩도 그지업다  
霽月光風 저문 날에 牧丹黃菊이 다 盡토록  
우리의 고은 님은 白馬 金鞍으로 어디를 단이다가  
뉘 손에 잡히여 笑入胡姬酒肆中인고  
이희야 秋風落葉掩重門에 기다린들 무엇허리

1743

술이라 하면 물 물 허듯 하고 飲食이라 하면 현 물 등에 藥 타오듯  
兩 수종다리<sup>22)</sup> 잡조지팔<sup>23)</sup>과 흘기눈<sup>24)</sup>에 안팎솟장이<sup>25)</sup> 고자 男便을 만  
석 둥이라 안쳐 두고 보라  
門 밧기 桶 메읍쇼 하고 웨는 匠事 네나 자고 이거라

1352는 화자가 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술’은 화자가 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물로 해석된다. 화자는 ‘恩惠酒’와 ‘月下酒’를 빚어서 자신과 임을 낳아준 부모님과 둘 사이의 인연을 맺어준 월하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술’을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 수종다리 : 부은 다리.

23) 잡조지팔 : 잡쫓 같은 팔. ‘잡쫓’은 쟁깃술의 중간에 박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쟁기를 들거나 뒤로 물릴 때에 이것을 잡아 쳐든다.

24) 흘기눈 : 흑보기.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흘겨보는 사람.

25) 안팎솟장이 : 안팎솟사. 가슴과 등이 심하게 튀어나온 사람.

538은 酒色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酒肆’와 ‘胡姬’는 화자가 임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에게 임이 오지 못하도록 붙잡는 존재는 怨望의 대상일 뿐이다.<sup>26)</sup> 1743은 ‘술’과 음식 먹기만 좋아하고 ‘수종다리’, ‘잡조지 팔’, ‘홀기눈’, ‘안팎삽장이’에다 ‘鼓子’이기까지 하여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남편이 원망스러운 여인에게는 남편이 즐기는 ‘술’도 원망스럽기 마련이다.

## 2) 비유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는 ‘술’이 비유적·상징적 의미로 활용된다. 작품에 따라 그것은 사랑하는 임이나 임과의 만남을 비유하기도 하고, 만남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비유하기도 한다.

### (1) 임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비유상관물

996

물 타고 곳bate 든이 물굽에서 좇내 난다  
 酒泉堂 돌아든이 안이 먹은 술내 난다  
 엇덜타 눈경에 걸은 님은 헛말 못져 나눈이

1723

술 먹고 醉흔 後의 얼음 쑹의 촌 승녕과  
 새베 님 가려거든 고쳐 안고 즘든 맛과  
 世間의 이 두 滋味는 늬이 알가 흐노라

26) 538 외에 2232와 2896에서도 ‘술’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원망스런 존재로 나타난다.

1732

술은 뉘 삼기며 離別은 뉘 니신고  
 술 나즈 離別 나즈 離別 後에 술이 나니  
 醉호고 님 離別호니 그를 슬허 호노라

1746

술이 醉호거든 씨지 말게 삼기거나  
 님을 만나거든 離別 업게 삼기거나  
 술 씨고 님 離別호니 그를 슬허 호노라

996은 마음에 둔 임과 관계가 진척되기도 전에 헛소문이 먼저 돌아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 흔히 봉착하게 되는 난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서 초장의 ‘ჟ내’(꽃 향기)와 중장의 ‘술내’(술 냄새)는 모두 임과의 관계에 대한 ‘헛말’(헛소문)을 지시하는 비유상관물이다. 이로부터 초장의 ‘꽃밭’(꽃밭)과 중장의 ‘술’은 화자가 사모하는 임을 지시하고, ‘꽃밭에 들어가는 행위’와 ‘술을 먹는 행위’는 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의 ‘술’도 남녀 관계에 관한 비유상관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1723에서의 ‘술’도 사랑의 비유상관물로 읽힌다. 화자는 ‘술’을 먹고 취한 후에 얼음 구멍의 찬 술을 마시는 맛과 새벽에 가려고 하는 임을 다시 안고 잠든 맛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재미라고 하고 있다. 이 작품의 문면에는 ‘취한 후에 차가운 술을 마시는 것’과 ‘새벽에 가려는 임을 다시 한 번 안는 것’이 특별한 재미를 더해 주는 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두 가지 특별한 재미를 보기 이전에 하게 되는 ‘술에 취하는 것’과 ‘임을 안고 잠드는 행위’ 자체가 이미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등가

적인 표현으로 병치되는 ‘술에 취한’ 상태와 ‘임을 안고 잠든’ 상황이 비유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술’은 곧 ‘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32와 1746은 유사한 종장을 지니면서, 공히 ‘술’과 ‘이별’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746에서 ‘술’이 취한 상태는 임과의 만남을 비유하고 ‘술’이 깬 상태는 임과의 이별을 비유한다. 곧 ‘술’이 취할 때의 즐거움과 임을 만날 때의 기쁨이 같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의 ‘술’은 곧 사랑하는 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1732에서의 ‘술’도 애정의 비유상관물로 해석된다. 1746에서와 마찬가지로 ‘술’은 ‘임’ 또는 ‘임과의 만남’을 비유한다.<sup>27)</sup>

## (2) 감정 표현의 비유상관물

2783

天地間 萬物之衆에 그 무어시 무셔온고

白額虎 豺狼이며 大蟒 毒蛇 蜈蚣 蜘蛛 夜叉 | 두억神과 魍魎 魍魎 妖怪 邪氣며

狐精靈 蒙達鬼神 閻羅使者와 十王差使를 다 몰속 것거 보와시나

아마도 입을 못 보면 肝腸에 불이 나서 사라져 죽게 되고

불지라도 놀납고 씹죽혀야 四肢가 덜노 녹아 어린 듯 醜흔 드시 말도 아니 나기는 任이신가 ㅎ노라

2705

덧 디는 鶴일넌가 털 치는 사심인지

젓칼치 形狀이요 멀기는 무삼 일고

어디서 술 업슨 밥을 먹고 누를 보려 왔난고

27) 동시에 이 작품의 경우는 이별의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의 ‘술’로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중장 말구의 ‘술’은 위로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2786에서 醉한 상태는 화자가 사랑하는 ‘임’ 또는 입에 대한 애정을 비유한다. 화자는 세상의 별의별 무서운 것들을 다 겪어 보았으나 사랑하는 임만큼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사지를 녹게 하는 것은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못 보면 간장에 불이 나서 사람을 죽게 하고, 못 보다가 보게 되면 사람을 끔찍하게 놀라게 하고 사지를 녹게 하여 황홀하게 도취된 듯, 술에 취한 듯, 말도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황홀하게 도취된 듯한’ 것과 ‘술에 취한 듯한’ 것 및 ‘말도 나지 않는’ 것은 모두 임을 몹시 사랑하게 된 상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임과의 만남에서 느끼게 되는 사랑의 감정 또는 황홀함을 비유한다.

2705에서 기생으로 보이는 여성 화자는 초라한 행색으로 ‘술’ 없는 밥을 먹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질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술’은 남성 화자 시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류와 관련된 뜻을 지니면서 동시에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자는 행색이 화려하고 밥을 먹을 때는 ‘술’도 한 잔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여유와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남자를 원하고 있다. 그러한 화자가 초라한 행색의 가난한 손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남녀관계에서는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술’이 사랑의 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구비하지 못한 남성을 만난 여성에게 ‘술’이 없다는 것은 질책의 빌미가 될 뿐이다.<sup>28)</sup>

28) 여성 화자의 시조 작품에서 ‘술’은 인식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성 화자에게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남녀 관계의 비유상관물로 활용되지만 그 화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편 남성에게는 오로지 풍류와 유락의 수단이 될 뿐이다.

### 3) 복합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도 ‘술’은 비유적·상징적 의미로 활용되어 애정, 이별의 슬픔, 미련과 집착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니는 함의는 중의성을 넘어 복합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

#### (1) 감정 표현의 비유상관물

1056

무서리 술이 되야 萬山을 다 勸히니  
 어제 푸른 님히 오날 아츰 다 붉거다  
 白髮도 검길 줄 알면 우리 님도 勸히리다

1242

碧雲天 黃花地에 西風緊 北鴈飛라  
 하룻밤 찬 시벽에 님라셔 霜林을 醉히인고  
 아마도 離恨別淚로 물드린 ㅎ노라(金學淵)

1056에서의 ‘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여기에는 입을 다시 젊어지게 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서리가 초목을 붉게 물들이듯이 화자는 ‘술’로 입을 젊어지게 하고자 한다.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서리가 내린 후에 붉게 변한 산에서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변한 사람의 모습을 연상한다. ‘술’은 그것을 마신 존재를 붉게 한다는 점에서 ‘서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서리’의 비유상관물로 활용된 ‘술’이 종장에서는 ‘입의 백발을 검게 할 回春의 약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랑하는 입을 젊어지게 하고 싶다는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는 매개물

로 활용된다.<sup>29)</sup>

1242의 화자는 ‘술’을 통해 이별의 슬픔과 그로 인한 눈물을 비유하고 있다. 중장의 ‘霜林을 醉호인고’는 1056의 초·중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숲에 서리가 내려 붉게 단풍이 든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자는 ‘서리 내린 붉게 물든 숲’을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에서의 ‘서리’는 ‘술’에 비유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화자의 표현에 의하면 숲은 서리를 맞아 붉어진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술’에 취해 붉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어서 화자는 중장에서 ‘서리를 맞아 술에 취한 것처럼 붉게 변한 숲’이 ‘離恨別淚’로 물들여졌다고 노래한다. 여기서는 비유적 관계에 있는 ‘술’과 ‘서리’가 이번에는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의 비유상관물이 된다. 중장과 중장을 통틀어 볼 때 화자는 ‘이별의 눈물이 서리로 내려 숲을 술 취한 듯이 붉게 물들었다’고 노래하면서, ‘이별의 눈물’을 표현하기 위해 ‘서리’와 ‘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매우 복잡한 비유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願望의 대상

595

내 精靈 술에 섰거 님의 속의 홀너 드러

九回肝腸을 드 츠즈 단닐만정

날 잇고 남 向호 ㅁ음을 다스로려 호노라(金昌翁)

29) 이 작품에 보이는 ‘서리’와 ‘술’의 비유관계는 1242에도 나오는 것이다. 1242에서 ‘서리’, ‘술’, ‘이별의 눈물’이 비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서리’, ‘술’, ‘임의 백발을 검게 할 回春의 약’이 비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비유관계를 ‘술’과 애정으로 국한시켜 볼 때, 1242에서의 ‘술’이 사랑의 감정 또는 그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비유한다면 1056에서의 ‘술’은 사랑의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매개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319

이 몸 식여져서 님의 薑의 술이 되어  
 흘러 속의 드러 님의 안홀 알고란자  
 미야코<sup>30)</sup> 薄絶<sup>31)</sup> 뜻이 어니 궁극 들었는고

595와 2319는 유사한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작품의 화자는 공히 ‘술’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표현하고 있다. 595의 화자는 자신의 영혼을 ‘술’에 섞어서 임의 뱃속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변심한 임의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한다. 2319의 화자도 역시 죽어서 ‘술’이 되어 임의 뱃속에 흘러들어가 매정하고도 박절하게 자신을 저버린 마음이 어디에 들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595에서는 ‘술’이 변심한 임의 마음을 다스릴 수단으로, 2319에서는 자신을 저버린 임의 마음을 확인할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작품에서의 ‘술’은 여성 화자의 願望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술’은 남자에게 풍류와 흥취의 수단이자 애호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것은 결핍된 애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되고자 염원하는 대상일 수 있다. 이 두 작품의 화자는 ‘술’을 통해 임의 마음을 다스리고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발화의 이면에는 임이 ‘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신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 ‘술’로 향한 임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도 누리겠다고 하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것이다.

30) 미야코 : 맵고.

31) 薄絶<sup>31)</sup> : 迫切한. 인정이 없고 쌀쌀한.

### 3. 애정시조의 화자와 ‘술’의 의미

이상의 논의에서 살핀 ‘술’이 활용된 작품들은 ‘술이 지니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화자의 성별’에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작중 화자의 어조가 남성적인가 아니면 여성적인가 하는 점을 근거로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그것과 ‘술’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화자의 어조를 확정할 표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작중 화자의 성별을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애매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의 화자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술’이 활용된 애정시조 작품의 화자

‘술’의 의미	작품 번호	화자의 성별	작자
1-1	387	男性	
1-1	388	男性	
1-1	1581	男性	鄭澈
1-1	452	男性	
1-1	865	男性	安玟英
1-1	3191	男性	安玟英
1-1	3268	男性	
1-2	749	男性(女性)	扈錫均
1-2	3107	女性	
1-3	1352	女性(男性)	
1-3	538	女性	
1-3	1743	女性	
1-3	2232	女性	
1-3	2896	女性	

2-1	996	女性(男性)	
2-1	1723	女性	
2-1	1732	女性(男性)	
2-1	1746	女性(男性)	
2-2	2783	女性(男性)	
2-2	2705	女性	
3-1	1056	女性(男性)	
3-1	1242	男性(女性)	金學淵
3-2	595	女性	金昌翁
3-2	2319	女性	

(기호 없이 제시된 번호는 『역대시조전서』의 작품번호)<sup>32)</sup>

위의 표에서 의미 유형 1은 지시적 의미, 2는 비유적 의미, 3은 복합적 의미를 가리킨다. 1-1은 ‘술’이 지시적 의미로 활용되면서 ‘풍류와 흥취’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고, 1-2는 ‘위로의 수단’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며, 1-3은 ‘감정의 표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다. 2-1은 ‘술’이 비유적 의미로 활용되면서 ‘임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비유상관물’로 쓰인 경우이고, 2-2는 ‘감정 표현의 비유상관물’로 사용된 경우이다. 3-1은 ‘술’이 복합적 의미로 활용되면서 ‘감정 표현의 비유상관물’로 쓰인 경우이고, 3-2는 ‘감정 표현의 비유상관물’로 사용되면서 ‘願望의 대상’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된 경우이다.

화자를 ‘男性(女性)’으로 표시한 것은 작품의 화자를 남성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여성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 경우이고, 女性(男性)으로 표시한 것은 화자를 여성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남성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경우이다. 작자도 화자의 성별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작자와 화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작품의 경우 가집의 문면에 기록된 작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사항으

32) 1581의 주제를 ‘風流(飲酒)’로 표시한 것은 이 작품이 직접적으로는 ‘술’ 또는 ‘음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런 것도 모두 풍류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화자가 남성인 경우 ‘술’의 의미는 1-1이 7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1-2와 3-1이 각각 1편씩 나타난다. 그런데 1-1과 1-2는 애정을 주체나 소재로 하지 않는 보통의 시조 작품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이다. 다음은 보통의 남성 화자 시조 작품에서 ‘술’이 지니는 의미를 분류한 것인데, 이를 통해 1-1과 1-2가 애정 시조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의미가 아니라 시조 일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풍류의 수단 :

- 1) 교유와 접대를 위한 술: 158, 226, 598, 876, 1185, 1747, 2473, 2574, 2581, 2655 등
- 2) 유유자적한 삶에서 홀로 즐기는 술 : 124, 135, 248, 385, 715, 1004, 1204, 1453, 1739, 1741, 1744, 1745, 1847, 2082, 2394, 2678, 2841, 3249 등<sup>33)</sup>
- 3) 남성의 호기를 발산하거나 표현하는 수단: 65, 522, 821, 1334, 2214, 2803, 2852
- 4) 죽음 또는 허무함에 대한 대응 수단 : 9, 1228, 1348, 1374, 1393, 1518, 1531, 1888, 1927, 2584, 3074
- 5) 태평성대에 (백성과 함께) 즐기는 술 : 161, 515, 1812, 2353, 2521, 2689

나. 위로와 망각의 수단 :

- 1) 무상한 인생, 또는 외로운 삶에 대한 위로의 수단 : 831, 1020
- 2) 노동 후의 휴식의 수단: 976, 1494, 1908, 2057
- 3) 울분을 달래주는 수단: 840
- 4) 망각의 수단

33) 가에 속하는 1)과 2)는 작품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만 열거했다.

- (1) 슬픔, 시름, 시비를 잊게 하는 수단 : 235, 693, 935, 961, 1140, 1641, 1718, 1729, 1734, 1736, 1737, 1740, 1742, 1757, 2127, 2275, 3150, 3170
- (2) 역사와 세상을 잊게 하는 수단 : 1265, 1498, 2023, 3324
- 5) 떠나는 자를 위로하는 수단 : 2237
- 6) 죽은 자의 혼백을 위로하는 수단 : 2899, 2957

다. 기원과 축하의 수단 :

- 1) 장수, 건강, 회춘 기원의 수단 : 497, 826, 977, 1245, 1730, 2259, 2496, 2597, 3276
- 2) 특별한 날에 대한 기념과 축하의 수단 : 1068

라. 경계의 대상 :

- 1) 亡身の 경로 : 825, 1642, 1648, 1991, 2408, 2640, 2643, 2693
- 2)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 : 1893

(기호 없이 제시된 번호는 『역대시조전서』의 작품 번호)

남성 화자의 시조에 활용되어 있는 '술'의 의미는 위의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크게 '가. 풍류의 수단', '나. 위로와 망각의 수단', '다. 기원, 축하의 수단', '라. 경계의 대상'의 4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에 해당하는 작품이 가장 많고 '나'에서 '라'로 갈수록 작품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네 개의 큰 항목 아래 설정된 하위 항목들은 할당된 작품 수가 많을 경우 더 나뉠 수도 있고, 유사한 것들끼리 통합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와 '다' 및 '라'의 '술'도 기본적으로 '풍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술'을 통해 슬픔이나 고뇌를 위로하고 축하나 기원과 같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것에 풍류와 흥취를 돋우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성 화자 시

조에 나타나는 ‘술’의 의미는 대부분 ‘풍류와 흥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술’의 의미가 ‘풍류와 흥취’로 귀결되는 이러한 양상은 남성 화자 애정 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자가 남성일 때에는 ‘술’이 비록 애정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 단조로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sup>34)</sup>

화자가 여성인 경우 ‘술’의 의미는 1-2가 1편, 1-3이 5편, 2-1이 4편, 2-2가 2편, 3-1이 1편, 3-2가 2편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 화자의 애정 시조 작품에 활용된 ‘술’에는 남성 화자 작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다 다채로운 의미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남성 화자 시조 작품에서의 ‘술’이 대체로 ‘풍류와 흥취’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과 달리, 여성 화자 시조 작품에서는 그것이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특히 ‘술’이 비유적·상징적 의미로 활용되는 것은 남성 화자 시조 작품에서 찾기 어려운 여성 화자 시조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으로 ‘술’과 관련된 애정시조 작품을 찾아 정리하고, 이러한 작품들에 활용된 ‘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애정시조에서 ‘술’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 그것은 ‘풍류와 흥취의 수단’, ‘사랑의 슬픔을 위

34) 그뿐 아니라 남성 화자의 작품에 나오는 ‘술’은 함축적인 의미보다는 지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1242에서와 같이 남성 화자의 작품 가운데에도 ‘술’이 함축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간혹 존재지만, 남성 화자 시조에서 이런 작품은 매우 드물다.

로하는 수단’을 뜻하는 지시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고, ‘남녀 사이의 만남’이나 ‘남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감정’을 비유하는 중의적·복합적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애정시조에 활용된 ‘술’의 의미는 작중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성 화자 애정 시조 작품에서는 ‘술’이 주로 ‘풍류와 흥취의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성 화자 애정 시조 작품에서는 그것이 비유적·상징적 기능으로 활용되면서 애정과 관련된 보다 다채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술’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그것이 비교적 단순한 의미로 활용되는 보통의 시조 작품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술’이 지니는 의미망이 애정시조에서 보다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애정시조만을 대상으로 하여 ‘술’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술’을 제재로 활용한 작품은 애정시조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무도하가>, <한림별곡>, <청산별곡> 등을 필두로 후대에 지어진 다양한 갈래의 많은 작품들이 술을 노래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우리 시가에서 ‘술’이 지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작품을 보다 많이 찾아 정리하고 개별 사례에서 ‘술’이 지니는 구체적 의미를 정밀하게 따지는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1~1341면.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1~862면.

- 김주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 『한중인문과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212~237면.
- 서창교, 『고시조에 나타난 풍류 연구 : 술이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86면.
- 우상열, 『이백과 정철 비교 산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4, 217~234면.
- 유예근, 『송강의 주송문학』, 『논문집』 제10권 제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49~70면.
- 장덕순, 『술과 문학』,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4, No. 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9, 275~279면.
-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집, 한국시조학회, 2004, 207~239면.
- 정병욱, 『술과 한국인』, 『한국고전시가론』 증보판, 신구문화사, 1994, 1~531면.
- 정병현, 『한국 고전문학과 술 문화』, 『한국어와 문화』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 7~27면.
- 진동혁, 『고시조문학론』, 형설출판사, 1982, 1~322면.
- 최남선, 『육당최남선 전집』 13권, 현암사, 1974, 1~528면.
- 허남춘, 『송강 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73~94면.

ABSTRACT

The Meaning of the Liquor Used in Sijo Related with Love

Yim, Jae-wook\*

The liquor is used as various meanings in Sijo related with love. It is sometimes used as simple meanings such as 'the way of taste for the arts' and 'the way of consolation for the grief from love', and sometimes used as complex meanings comparing 'the meeting of lovers' or 'the various feelings from loving relationship'.

The liquor show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sex of the poetic narrator. The liquor mostly means 'the way of taste for the arts' when the poetic narrator is man. But it implies various metaphorical and symbolic meanings concerning love when the poetic narrator is woman.

These various meanings implied in liquor can be hardly found in common works of Sijo in which the liquor is used as comparatively simple meanings.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can know that the net of the meaning of liquor is enlarged in Sijo related with love.

**Key Words** Korean classical poetry, Sijo related with love, liquor, taste for the arts, metaphor, symbol, poetic narrator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 Seoul National University.